

## 백제의 건축

김진경, 106호 백제실 18:00~18:30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궁실을 새로 지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조왕 15년(기원전 4년)의 기사는 백제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으며, 그 시작이 바로 백제의 건축입니다.

백제 건축의 우수성은 사찰과 도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와 치미, 벽돌 등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왕흥사지 치미는 연꽃무늬, 구름무늬, 초화무늬 등으로 장식하였고, 그 형태는 마치 새가 꼬리를 세워 비상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할 수 있는 지붕장식을 화려함과 위엄을 갖춘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백제 최고 수준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승려들이 사용한 승방건물까지 치미를 사용했다는 점은 당시 승려들의 높은 지위를 추정하게 합니다. 한편 치미의 연꽃무늬와 동일한 기와편(그림2)이 함께 출토되어, 같은 기와틀에서 찍어내 치미에 부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성의 축조는 오랜 기간 준비되었으며, 체계적인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여 부소산성 동문지에서 출토된 ‘대통’ 도장을 찍은 암키와는 사비도성의 중요한 방어시설인 부소산성이 538년 천도 이전부터 축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는 길이 40m에 이르는 기와를 조립해서 만든 도수관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수관은 수키와를 전용해 쓰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히 변형하여 제작한 사례도 많습니다. 한 건물지에서는 수키와열을 통해 흘러나온 물이 ‘소상’이라는 글자를 새긴 원통형 토기 안에 고일 수 있도록 안내한 특이한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1. 부여 관북리 유적 토관과 ‘소상’명 토기 출토 모습



그림 2. 연꽃무늬 수막새(왕흥사지)

제72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31일)

# 1,600년 전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

이상미,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전시는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 중에 고대 신라와 가야의 무덤에 사용되었던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인물, 동물, 사물의 모습을 한 토기와 토우들이 가득한데 모두 1,600년 전 장송의례에서 사용된 특별한 의미의 제의용 그릇들입니다. 유물의 모양을 따라가면서 그 형태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는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후의 세계로 가는 장송의례입니다. 고대의 장송의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거대한 무덤에 많은 껍묻거리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후장厚葬 풍습도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무덤에서 나온 여러 모양의 상형토기는 죽은 이의 다음 삶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제의용 그릇입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새, 상서로운 동물, 뿔, 말, 수레, 배, 집, 등잔 등의 상형토기를 무덤에 부장품으로 묻었습니다. 여기에 죽음을 삶과 연속된 세상으로 바라보려 했던 1,600년 전 사람들의 내세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상징을 담은 다섯의 상형토기

상형토기에 담긴 내세관과 장송의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함안 말이산 45호입니다. 함안 말이산 정상에 솟아있는 거대한 무덤에는 아라가야를 통



함안 말이산 45호 무덤 상형토기

치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말이산 45호 무덤에서 사슴모양 뿔잔, 배모양 토기, 집모양 토기 2점, 등잔모양 토기 등 모두 다섯 점의 상형토기가 한꺼번에 발견되었는데, 한 무덤에서 원형 그대로 가야의 상형토기 장송의례 전통이 보존되어 그 가치가 더욱더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조선시대의 풍속화

김지선, 202호 서화Ⅱ실 19:00~19:30

조선 후기에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풍속화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그림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계회도(契會圖)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회도는 관리들의 모임 그림으로, 그들의 모임을 기념하고 구성원 간 결속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회도는 모임의 기록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용적 용도 없이 제작된 조선 후기 풍속화와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공재 윤두서(尹斗緒, 1668-1715), 관아재 조영석(趙榮祏, 1686-1761) 등 사대부 화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풍속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주변의 현실을 ‘사생’ 하여 화폭에 옮기는 사실주의적 회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속화가 유행하기 전까지 조선시대 회화사상 현실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옮긴 그림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가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 이전의 그림 자료를 전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세기 말 화단에서는 현실을 화폭에 옮기는 리얼리즘에 대한 모종의 회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수화에서도 금강산을 비롯한 조선의 실경을 그린 작품이 대거 등장하는 것 역시 이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둘째, 사대부들 사이에서 조선 후기 한양의 경제적 발전을 이끈 농업, 공업, 상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 공업, 상업은 대동법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조선 후기 한양을 풍부한 물질과 재화로 가득 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즉 윤두서, 조영석을 위시한 사대부들은 이러한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의 풍속화가 단순히 서민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구사한 ‘노동의 기술’을 상세히 포착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윤두서가 처음 그리고 강희언(姜熙彦, 1738-1784 이전)이 그대로 따라 그린 <석공공석도>, 조영석의 <말장박기>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그림 1, 2). 따라서 조선시대 풍속화의 발생 배경을 단순히 서민에 대한 상류층의 동정 어린 관심이나 애정으로 보는 시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1. 강희언,  
〈석공공석도〉, 18세기,  
22.8×15.3cm



그림2. 조영석,  
〈말정박기〉, 18세기,  
36.7×25.1cm

윤두서와 조영석으로부터 시작된 풍속화는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1806?)에 의해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김홍도를 풍속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홍도가 풍속화의 발전에 가장 기여한 부분은 풍속화의 화제를 넓힌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선배 화가들의 표현 방식과 달리 노동하는 서민이 아니라 ‘오락’ 하는 서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림3. 김홍도, 〈씨름〉,  
《김홍도필 풍속화첩》,  
18세기, 26.9×22.2cm



그림4. 김홍도, 〈무동〉,  
《김홍도필 풍속화첩》,  
18세기, 26.8×22.7cm

김홍도가 <씨름>, <무동> 등에 담아낸 서민의 모습은 그 이전 세대 화가들이 담은 서민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림 3, 4). 김홍도가 활동한 18세기 후반이 되면 한양의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농산물 생산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도시의 문화력에 힘입어 여가나 유흥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홍도는 바로 이

와 같은 생생한 현실의 장면을 화폭에 옮김으로써 풍속화의 지평을 넓히고 대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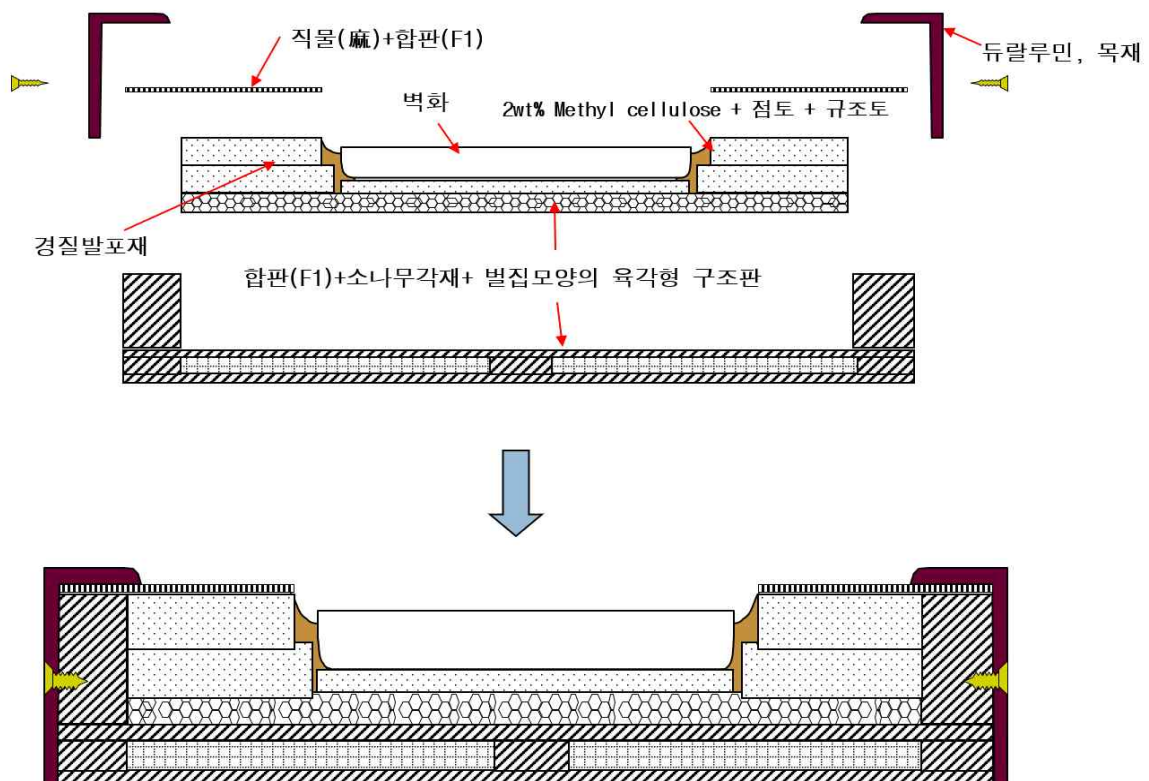
제72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31일)

## 중앙아시아 벽화의 보존과 복원

조연태, 307호 중앙아시아실 19:00~19:30

중앙아시아 벽화 보존처리는 세척→안료층 강화→안료층 보호→기존 액자 해체→벽체층 강화·보강→벽체 보강→안료층 보호지 제거→액자 제작→마감처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존처리는 박리 박락된 안료층과 약화된 벽체층을 강화하고 보강하였으며, 운송과 전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 및 군수분야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벽화의 중량을 경량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시 기획에 따라 액자를 벽화 손상 없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벽화의 보존처리 단면 구조